



봄의 막바지에 즐기는 대동제

▲2017년 대동제 당시 사진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동제가 3일간 진행된다.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시작으로, 메인 무대에서는 낙산가요제, 영화제, 동아리와 초청 연예인의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어떤 연예인을 섭외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5월 11일 기준).

23일에는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낙산에 올라' 행사가 낙산정원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햄치뿔(햄버거 최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등의 음식 관련 행사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노래실력을 겨루는 '복면가왕' 등의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품 추첨과 보물찾기 등 번외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고요찬(역사4)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아리연합회가 단순히 동아리에만 국한된 기구가 아닌, 학생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4일에는 각 학과에서 주점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디자인대학 윤상준(제품디자인4) 회장은 "우촌관 앞 공터, 상상마당 등 4곳에 세워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1일 국제청이 교육부를 통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학생 주점을 축제 기간에 운영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전파한 탓에, 이번

축제 기간에는 '술 없는 주점'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회장은 "모든 단과대 학생회장이 주점에서 술을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메인무대에서 밤마다 공연이 펼쳐진다. 메인무대는 상상관 앞 풋살장에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낙산가요제 본선이 치러지며, 밴드 동아리 '왕산악', 풍물 동아리 '탈패', 초청가수 등의 공연이 열린다. 단, 23일에는 메인무대

공연이 끝난 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영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세부 일정에 대해 심원준(IT응용4) 부총학생회장은 "축제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하며, 하루빨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봄의 막바지에 찾아오는 이번 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길지, 그 결과가 고대된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지면안내

보도

교육혁신원, '한성 e-포드폴리오(HOPE)' 개설

02

사회

'들불'처럼 타오르는 노동자의 외침을 위하여

03



문화

음료수만 나오는 자판기 "이제 안녕~"

04



사람사

청년 보금자리 메이커, 김동찬 대표

05



학술

약보에 그려진 수학 공식을 풀다

06

오피니언

의회정, 삼학승 등

07

광고

제12회 사진공모전

08

취업지원팀,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래관 지하 1층 DLC와 로비에서 '졸업생과 함께하는 직무 토크 콘서트'와 '취업지원팀 부스 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직무 토크 콘서트'는 현업에 종사하는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직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팀이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팀 부스 행사'는 재학생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직무 토크 콘서트'는 날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되므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룰 때 참여하면 된다. 5월 16일까지 교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참석 가능한 일정을 제출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다. 16일에는 ▲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패션디자인 및 생산관리와 MD, 17일에는 ▲상품기획과 정보통신, 18일에는 ▲금융기획(재무회계) ▲총무(경영지원)를 주제로 진행한다.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거나, 교수 추천을 받은 졸업생들이 각 주제에 맞는 토크 콘서트에



▲작년에 진행된 취업지원팀 부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참석해 재학생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는 사전에 참가 신청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으로 구성된 공통질문에 졸업생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취업지원팀 부스 행사'에서는 ▲국제 학생증 발급 ▲직업 심리 검사 ▲진로&취업 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설명 ▲취업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 이 중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설명'과 '취업 사진 촬영 부스'는 16일에만 운영된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제 학생증 발급 부스'에서는 해외 여행 시 기차 티켓, 박물관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국제 학생증'을 받을 수 있다. 부스가 운영되는 3일 동안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국제 학생증을 발급해준다.

'직업 심리 검사 부스'는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된다.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나의 강점, 성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진로 및 직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로&취업 상담 부스'에 방문하면 앞서 받은 직업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에게 검사 결과 해석 및 진로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선용(취업지원팀) 담당자는 "졸업생들의 취업 성공 비법을 듣고, 재학생들이 취업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행사가 학생 각자에게 맞는 취업 준비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취업지원팀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정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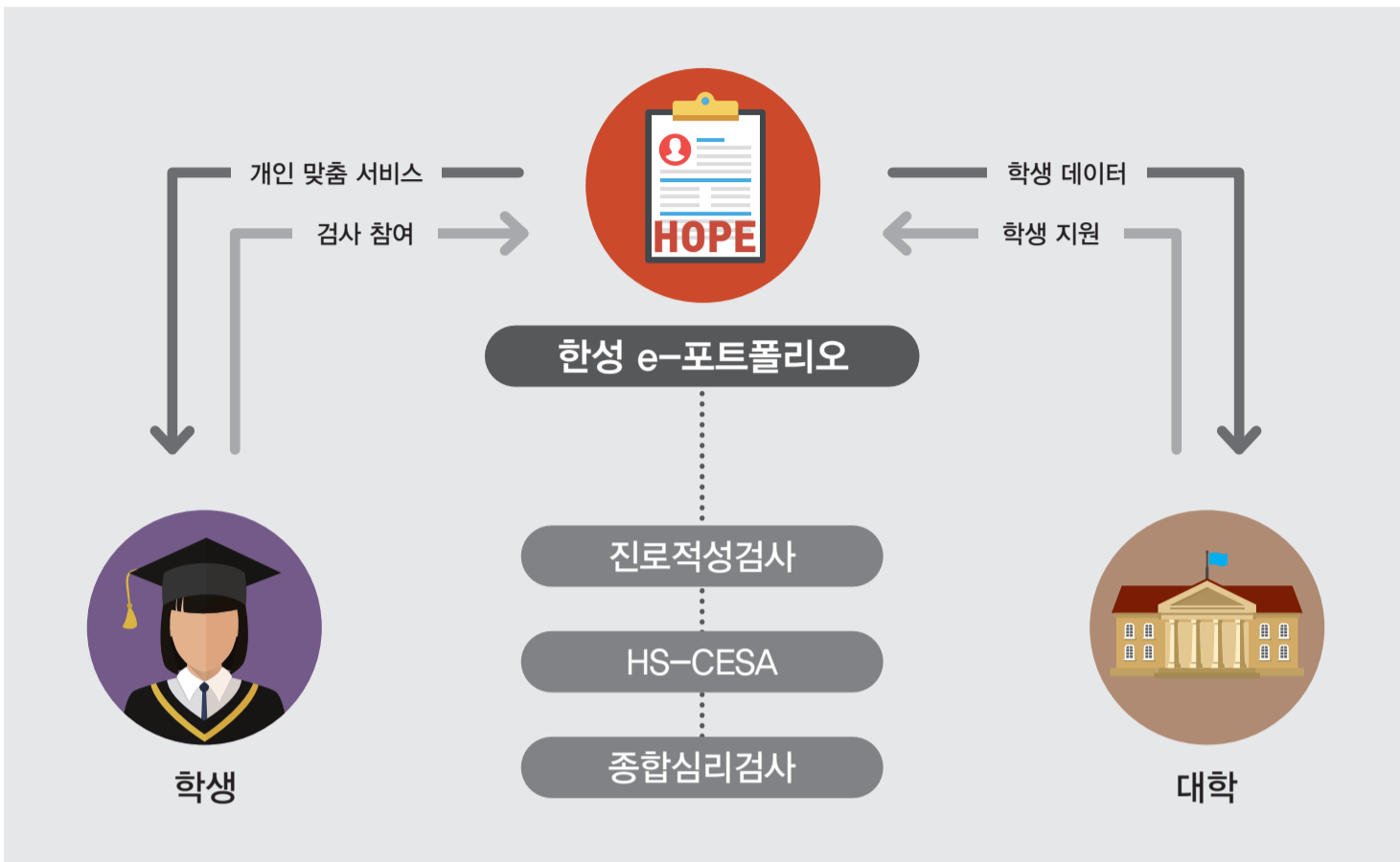
sff1228@naver.com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교육혁신원, '한성 e-포트폴리오(HOPE)' 개설



지난 3월, '한성 e-포트폴리오' (HOPE; Hansung, the Opportunity of Potentiality Enhancement)가 출범했다. HOPE는 교육혁신원에서 개설한 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 개인의 진로적성, 핵심역량 등의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 교수,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후에는 학생 개인에 맞는 검사 결과를 활용해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HOPE가 제공하는 검사에는 ▲진로적성검사 ▲한성대 핵심역량 진단검사(HS-CESA) ▲종합심리검사가 있다. '진로적성검사는 학생의 진로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개인 성향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준다. 또한,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인이

목표로 하는 직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성대 핵심역량 진단검사'는 본교 인재상 및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검사 도구다. 이 검사는 우리대학의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눈다. 이 검사에서 학생은 자신의 점수뿐만 아니라 대학, 단과대, 학과 평균 점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유규(교육혁신지원팀) 담당자는 "학생들이 강의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HOPE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검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해 비교과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종합심리검사'는 자신이 주변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다. 위 3가지 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지도 교수만 열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 상담사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담당자는 "기존에는 학생의 취업·진로, 심리 등의 정보를 각기 다른 행정부서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HOPE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학생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 부서에서 진행했던 비교과 관련 사항을 HOPE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를 활용해 개인에게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지도 교수 및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 학기 진행되는 지도 교수와의 면담도 HOPE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담당자는 "교수마다 면담 방식이 달라서 HOPE를 통한 면담을 당장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적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세세한 조정이 필요해 HOPE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5월 중으로 조정을 완료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HOPE에 접속하기만 해도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교 인재상에 맞는 역할을 키워내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한성 #타임라인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 실시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건강관리실 주관으로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번 검진은 외국인학생을 포함한 한성대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은 검진을 받을 수 없다. 검진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와 강남에 위치한 하나로의료재단에 내원하면 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여 분이며, 방문 시 학생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오전에 검진을 받으려면 검사 전날 12시부터, 오후에 검진을 받으려면 당일 아침식사부터 금식을 해야 한다.

검진 분야는 소변검사, 혈당, A·B형 간염 등 크게 16가지로 구분되며, 검사 결과는 60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분석된다. 결과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검사자에게 전달되며, 만약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사와 개인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실장은 "평소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다. 건강진단서에 증상이 있으면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 실장은 "2학기에도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니 1학기에 검진받지 못한 학생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교원양성교육과정, 심성 교육 특강 개최

지난 5월 4일, 본교 미래관 ELC에서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라는 주제로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은 교원양성교육과정이 주최한 심성 교육 특강으로, 현재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비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심성과 교직 적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또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과 실시간 고민 상담도 실시해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공유했다. 이후에는 이에 대해 강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주임교수는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과 예절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덕성을 지닌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본 특강을 개최한 것"이라며 "미래의 교육 리더에게 필요한 혜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강에 참여한 정윤미(무예 3) 학생은 "실제로 교직에 몸 담고 계시는 교수님께 설명을 들어서 유익했다. 교원의 기본적 소양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장선아 기자 suna0193@hansung.ac.kr

건강관리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지난 4월 30일 건강관리실 주최로 2018년도 '이동 금연클리닉'이 열렸다. 금연클리닉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는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 및 폐 나이(FEVI)를 측정하게 된다. 검사가 끝나면 참가자는 비교과포인트 10pt와 성북구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니코틴 패치·껌, 종합비타민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게 된다. 6주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성북구보건소에서 진행되는 혈액·소변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금연 성공 판정을 받은 학생은 비교과포인트 20pt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한 추후 6개월간 금연을 하면 보건소에서 금연성공카드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실장은 "실제로 금연 성공률은 정말 낮다"며 "1차 때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학생이 2주간 금연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2차, 3차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간 중에 흡연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방문해서 흡연량을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차, 2차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3차 때 참여할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교내 구성원의 참여를 촉구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경제학과, 학생 진로를 위한 행사 개최

지난 5월 1일, 상상관 컨퍼런스 홀에서 경제학과가 주최한 '베프톡(BFTalk, Barrier Free Talk, Best Friend Talk)' 행사가 개최됐다.

이내찬(사회과학대학 기업·경제트랙) 교수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미디어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토크쇼를 기획했다"며 "명망있는 외부 인사, 학생들, 현업종사자 등을 토크쇼에 초청해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번 베프톡은 '경제와 건강 창업'이라는 주제로 건강 관련 기업 창업자를 초청해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 토크쇼에는 영양 빵 카페 '파니피치오'의 이지원 대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육류수입업체 '델리케이'의 김수정 대표, 가정용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건강한형제들의 박준수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수(사회과학 2) 학생은 "구체적인 창업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창업을



▲'베프톡'에 참여한 학생들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5월 8일에는 'CJ 뽀개기'가 진행됐다. 'CJ 뽀개기'는 CJ 계열사인 'CJ헬로'와 'CJ E&M' 사옥을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이다. 과거 진행한 행사에는 경제학과 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경제학과 학생은 물론 타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미디어 등 학제 간 융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학과 학생 위주로 선발해 견학팀을 꾸렸다.

이날 방문한 CJ헬로는 방송통신기술을 생활에 적용해 새로운 라이프



▲CJ헬로 사옥에 방문한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스타일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모바일, 렌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CJ헬로 사옥에서 전문가에게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TV를 보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대해 듣고, 이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CJ E&M은 미디어콘텐츠, 영화, 음악, 컨벤션, 공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다. 이날 학생들은 CJ E&M 사옥 내 스튜디오를 견학하고 방송을 만드는 과정을 배웠다.

이번 행사에 대해 경제학과는 "학생들에게 콘텐츠 제작 환경과 모바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황선우(인문 1) 학생은 "처음으로 회사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회사에 대해 새롭고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신문사(4186)로 문의바랍니다.

음료수만 나오는 자판기 “이제 안녕~”

무더운 여름,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한 캔 뽑아 마시면 잠시나마 몸이 서늘해진다. 하지만 자판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비단 시원한 음료만이 아니다. 버튼만 누르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 상자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얻을 수 있는 ‘이색 자판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판기에서 설렘 하나가 ‘땡그랑’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면 갈증은 풀린다. 그러나 거북이 등처럼 짝 짝 갈라진 마음 속에는 어떤 설렘의 새싹조차 움트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여기 당신의 감성에 한 줄기 빗물을 내려줄 자판기가 있다.

고양 스타필드에 있는 ‘설렘자판기’ 안은 음료수 캔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로 가득 차 있다. 상자에는 ‘추리’, ‘로맨스’ 등 8가지 장르만 적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상자 안에 어떤 책이 들어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설렘으로 이어진다.

또 한 가지, 이 자판기의 특기할 만한 점은 대학생이 운영하는 자판기라는 것이다. 설렘자판기는 국제 비영리 단체 ‘인액터스(Enactus)’ 연세대학교 지부에 속한 학생들이 결성한 프로젝트 ‘책이아웃’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지윤(영어영문 4) 책이아웃 팀장은 “체계적 한책방 거리가 쇠퇴하는 실정이 안타까워, 이를 돕기 위해 자판기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자판기로 올린 수익의 일부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을 제공한 한책방 사장에게 분배된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이웃에게 도움도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자판기에서 처방전이 나온다고?

몸이 아프면 약도 사먹고 병원에도 가면서, 정작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몸에 난 상처는 보이더라도 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는

우리의 고된 마음에 ‘처방’을 내려주는 ‘마음약방’ 자판기가 있다. 마음약방에는 각각 21가지 증상이 적힌 상자가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막막증’, ‘작심3-illness’와 같이 신선하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증상명은 이 자판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든다. 상자 안에는 각 증상에 따른 처방전이 들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 도서, 대학로 산책코스 등을 추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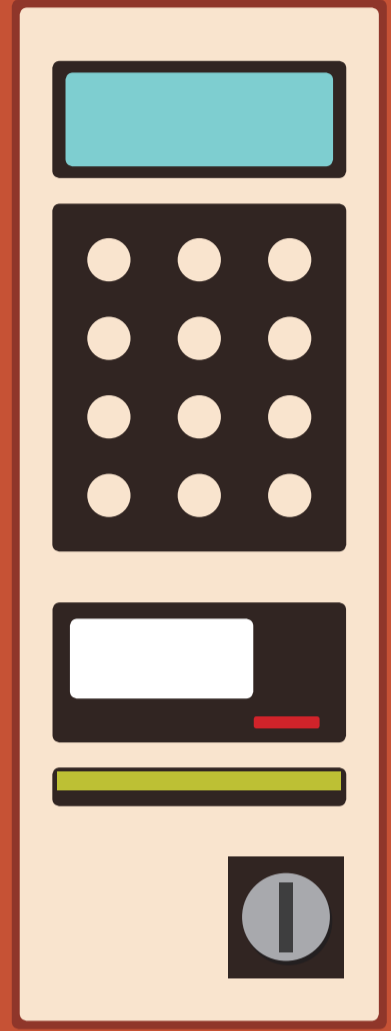
마음약방은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자’는 취지로 서울문화재단이 설치했다.

이에 대해 김진환(서울문화재단) 과장은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처방전에 적힌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이를 치유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 학점 관리로 인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요즘, 영화나 책을 고를 틈조차 없이 바쁜 일상에 자신을 내던져왔다면 오늘은 ‘이색 자판기’가 주는 소소한 낭만으로 마음을 촉촉이 적셔 보는 것은 어떨까?



▲고양 스타필드에 있는 ‘설렘자판기’(좌),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 소재한 ‘마음약방’ 자판기(우)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싱그러움은 깡통 속에 담을 수 없다



▲홍대 상상마당에 자리 잡은 '난만플라워'의 꽃다발 자판기. 꽃집과 비슷한 가격에 꽃다발을 판매하는데, 형태가 오래 지속돼 가성비 좋은 편이다.

향기로운 추억을 오래오래, 꽃다발 자판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곤 한다. 그만큼 꽃다발이 갖는 의미는 크다. 예쁘고 향기도 좋고 의미도 있는 선물이지만, 꽃다발의 치명적인 단점은 얼마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런 단점을 보완한 꽃다발을 자판기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난만플라워’는 홍대 거리와 같은

변화기에 꽃다발 자판기를 설치했다. 굳이 꽃집을 찾아가지 않아도 꽃다발을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생화를 화학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로 만든 꽃다발이라 형태가 오래 지속된다. 가격은 12,000~20,000원 수준으로 일반 꽃집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네, 형태가 오래 지속되어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꽃다발 자판기를 운영하는 고민규

(난만플라워) 대표는 “베트남과 영국을 여행하면서 꽃과 친숙한 그들의 문화에 감명 받았다”며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바라면서 자판기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꽃이 금방 시들어 아쉬운 적이 있다면, 이제 꽃다발 자판기로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자. 이참에 소중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추억을 남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컵라면 값으로 아침을 든든하게, 바나나 자판기

통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통학러’에게 아침 식사는 사치다. 자칫 지하철을 놓치면 아침 수업에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빈속으로 지하철에 몸을 실은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으니, 바로 ‘바나나 자판기’다.

바나나 자판기에서는 박스에 포장된 ‘바나나’와 ‘바나나 케이스’를 판매한다. 바나나 1개가 들어있는 상자는

1,100원으로 컵라면과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바나나 케이스는 하나에 1,600원인데, 바나나가 가방에서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 휴대성을 더해준다. 바나나 2개가 들어있는 상자도 1,900원에 판매하니, 하나로 양이 안 찬다면 구매해 보는 것도 좋다.

정말 신선한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되는가? 걱정하지 말자. 자판기를 운영하는 ‘돌코리아(Dole

Korea)’에서 3~5일마다 바나나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서, 항상 신선한 바나나를 즐길 수 있다. 왕십리역, 영등포역, 홍대입구역, 용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4곳에 설치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아침식사를 거른 통학생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바쁜 통학길, 아침식사를 거르고 집을 나섰다면 오늘날만큼 바나나 자판기를 활용해 빈속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영등포역에 위치한 바나나 자판기. 바나나와 바나나 케이스를 판매해 끼니를 거른 통학러가 배를 채우기에 좋다.

청년 보금자리 메이커, 김동찬 대표



만인의 꿈 김동찬 대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혼자 상경하게 된 A씨. 학기 초에 학교에서 진행했던 친목행사는 자취방을 구하느라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뒤늦게 친구를 사귀자니 낯가림이 심해서 힘들기도 했고, 더군다나 이미 친하게 지내는 집단이 형성된 뒤라 쉽게 다가가기도 어려웠다. 결국 A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나홀로족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다행히 요즘은 사회적으로 혼술·혼밥·혼영러의 이미지가 썩 나쁘지 않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외로운 마음을 지우는 것이 쉽지않은 않다고.

혹시 이 기사를 읽는 당신도 A씨와 같은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는 외로운 학생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람, '만인의 꿈' 김동찬 대표를 만나봤다.

학교, 식당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원래부터 관심있던 분야였나

A. 7-8년 전이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처럼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학생이었죠. 26살 즈음 됐을 땐데, 집이 멀어서 되도록 숙소가 제공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려니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차라리 창업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디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수익이 있었고 결과도 좋아서 그때부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성과를 냈더니 강연 의뢰도 많이 들어왔어요. 주로 꿈에 대한 강연이었죠. 그때 "나는 꿈이 있어서 창업을 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됐다"고 강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금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영어와 중국어도 잘했고, 유학도 다녀왔고, 공군 장교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질 수 있었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은 꿈을 가질 기회조차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청년들이 꿈을 갖는데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모아 만든 것이 현재의 '만인'의 꿈이에요.

Q. 어려운 일도 분명 있었을텐데

A.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죠. 어떤 회사나 겪는 문제를 저희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회사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금전 문제를 겪기도 해요. 다른 회사도 똑같이 겪는 일이니 우리 회사가 유난히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겪은 일을 들 수 있겠네요.

청년들을 위한 '드림인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였어요. 힘들게 지내는 청년들을 전국에서 데려와서 3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하고, 일자리 알선도 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1년 동안 4차례 진행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두 가계의 수익으로만 운영한 거라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3개월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엔 부족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 거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운영하는 두 가게를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더 투자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나는 그 투자 수익으로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건물 한 채를 빌려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창업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때의 경험이 '만인의 꿈'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만족하고 있어요.

Q. 공간 운영 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A.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청년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청년 시기에 겪는 우울증이 소외감, 고독감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인의 꿈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셰어하우스마다 놀이, 공부, 체육 등 다양한 '미션'을 주고, 이를 잘 수행한 집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죠. 구성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잖아요?

끝으로 김 대표는 "요즘 혼술, 혼밥을 즐기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모습이 맞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건이 돼서 혼자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이 스스로 원해서 혼자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이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무언가를 함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라며 웃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Q. 만인의 꿈? 이름만으로 정체를 유추하기 어려운데

A. '만인의 꿈'은 신촌 일대에서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120여 명의 청년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카페, 갤러리,



▲만인의 꿈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2018

제3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대회 내용

-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 목적**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오후 4 ~ 6시
※ 실제 글쓰기 시간 100분
- 장소** 낙산관 대강당
- 문제출제** 대회 당일 현장 공지
- 심사일정** 1차 2018년 5월 18일(금) ~ 5월 22일(화)
2차 2018년 5월 23일(수) ~ 5월 29일(화)
3차(본심) 2018년 5월 30일(수) ~ 6월 6일(수)

신청 및 시상

- 신청 기간** 4월 30일(월) ~ 5월 16일(수)
- 신청 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메일 또는 직접 제출
- 준비 사항(대회 당일)** 신분증(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 필기 도구(반드시 볼펜 사용)
- 시상 내역 및 상금** 1) 최우수상 : 1명 - 상금 50만 원, 비교과 포인트 60점
2) 우수상 : 4명 -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50점
3) 장려상 : 5명 - 상금 5만 원, 비교과 포인트 40점
4) 참여 : 비교과 포인트 20점
※ 수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유의 사항** 대회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악보에 그려진 수학 공식을 풀다

작곡가와 수학가가 '다양한 음표가 나열된 악보'와 '수학공식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놓고 서로 비교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그들은 서로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음악을 수학의 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계의 비율과 화성학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았으며, 음악은 수학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치밀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차근차근 읽다보면, 어느새 음악과 수학의 '끈끈한' 관계를 능히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음계와 얽힌 수학 이야기

수학시간에 배웠던 '조화수열'은 원래 음계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의 음악가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특정 음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음들을 발생시키는 현의 길이 비율을 나열했더니, 그 역수가 앞의 숫자와 항상 일정한 차이를 두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로 정의되는 '조화수열'의 유래다. 이에 대해 신현웅(한국국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는 "피타고라스는 인간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화음은 수학적 사유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벽화 <아테네 학당> 테트라크티스(Tetractys)는 피타고라스의 음계 이론을 상징한다.

또한 바흐의 곡집 중 하나인 <평균율>에서도 수학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집의 음정은 각 음 간의 진동수가 일정한 무리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신 교수는 바흐의 <평균율>에 대해 "피타고라스 음계는 정수와 분수, 즉 '유리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음을 간단한 대체적으로 화음이 잘 맞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음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미묘한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불협화음을 해결하려면 '무리수'를 활용해야 한다. <평균율>은 간단한 정수비로 완벽한 화음을 내는 대신, 모든 음을 평준화시켜 불협화음을 없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황금비율, 보지 말고 들으세요

건축물이나 미술 작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황금비율'은 수학과 예술의 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건축물이나 미술작품 등 시각적 요소가 없는 곳, 즉 음악에서도 황금비율은 존재한다.



▲ 악보 '현악기, 타악기, 첼리스트를 위한 음악'의 1악장 마지막 부분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황금비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꼽았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앞선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오는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이다. 신 교수는 "음악에 있어 황금비율은 곧 피보나치 수열이고, 피보나치 수열이 곧 황금비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된 대표적인 곡에는 헝가리의 작곡가 버르토크(B. Bartók, 1881~1945)가 작곡한 '현악기, 타악기, 첼리스트를 위한 음악(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이 있다. 신 교수는 "이 곡의 클라이맥스는 제1악장의 55마디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에 등장하는 수인 89, 55, 34, 21, 13 등과 주목할 만한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진동

음악과 수학을 연관 지을 때 음파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인 소리는 복잡한 파동의 형태인 '파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 분석이 어렵다. 이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등을 정확히 어떤 음이라고 단정 짓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악기의 앞선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오는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이다. 신 교수는 "음악에 있어 황금비율은 곧 피보나치 수열이고, 피보나치 수열이 곧 황금비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우리는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의 '어떠한 반복되는 파형도 많은 수의 기본적인 파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푸리에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오케스트라의 파형을 분석해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리고 같은 악기라도 누가 더 큰 소리를 냈는지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

신 교수는 '푸리에 정리'를 음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파형은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파형도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푸리에 정리'는 애초부터 반복되는 파형에서 함수를 떠올리고, 삼각함수의 급수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음파를 '푸리에 정리'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떡떡, 거기 글루텐 있나요?

친구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어간 작은 분식집.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음식 앞에선 먹살잡이를 부르는 취향 차이와 꼬들 면. 그리고 빠지지 않는 국민 간식 떡볶이에도 이러한 취향 차이가 발생한다. 떡의 종류가 떡볶이의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밀떡과 쌀떡은 말 그대로 '밀가루로 만든 떡'과 '쌀로 만든 떡'이다. 각각의 원료인 밀가루와 쌀로 구분해 생각해 보면,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단백질 함량이라고 볼 수 있다. 단백질은 '수용성 단백질'과 '불용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떡볶이의 식감을 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밀가루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80%는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lin)이라는 불용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단백질은 물을 매개로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밀떡의 밀가루 성분과 양념의 수분이 만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돼 '글루텐(Gluten)'이 된다. 글루텐은 길게 늘어나는 글리아딘의 신장성과 압력을 가해도 다시 되돌아오는 글루테닌의 탄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송동흠(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글리아딘은 구슬모양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루테닌은 분자 사이가 막으로 이루어진 그물망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결합된 글루텐은 글리아딘이 기둥, 글루테닌이 벽을 이루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떡의 밀도가 높아져 삼투압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양념이 떡에 잘 배어들어 양념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반면, 쌀에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떡볶이용 쌀떡은 밀가루를 살짝 섞은 혼합 떡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밀떡이 쌀떡의 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실제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떡볶이에 대한 20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쌀떡볶이를 선호하는 사람이 51.3%로 밀떡볶이를 선호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밀떡에 '쫄깃한 식감'이 있다면, 쌀떡에는 떡 자체의 '고소한 풍미와 찰기'가 있어, 떡볶이 양념과 만나면 무시 못 할 매력을 발산한다. 자신이 밀떡과인지 쌀떡과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떡볶이 집으로 뛰쳐나가보자.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경제학과 기획 베프톡

BFT: Barrier Free, Best Friend Talk



정보통신 뉴미디어 산업의 도전과 기회: 멘티와 멘토의 시각

-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오후 15:30~17:30
 - 장소**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 내용** 1부 멘티의 정보통신 뉴미디어 산업 분석 결과 경진대회/시상
2부 멘토의 시각
 - 참석자** 오라티오 나승연 대표(전 평창 올림픽 대변인, '나승연의 프레젠테이션, 저자')
유정석 대표(현대케이블방송(HCN))
박지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 ※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 일본을 해부하다

- 일시** 6월 5일(화) 오후 3:30~5:10
 - 장소**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 내용** 1부 멘티의 경진대회/시상
2부 멘토의 시각
 - 참석자** 일본 정치경제의 권위자 윤덕민 교수(외국어대 석좌 교수, 전 외교연구원장)
이지평 박사(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취업 리쿠르팅 대표 西山洸(니시아야 코우; 게이오 졸, 전 일본 외무성)
- ※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의화정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유독 마음에 남는 작품이 있는데, 20세기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담장 수리(Mending Wall)”라는 시가 그 예다. 봄이 되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돌로 쌓은 담장 여기저기에 균열이 생기자 이웃과 함께 수리를 하는 어느 남성의 이야기다. 화자는 “뭔지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자연, 즉 사물의 이치(nature of things)는 인위적 담장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은 이웃을 배려해서 수리를 하지만 딱히 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종 일관 여유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않는 배려심도 뛰어난 듯하던 화자지만, 자기처럼 비판적 재고 없이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관행을 무조건 답습만 한다며 내심 이웃을 경멸하던니 급기야 그를 구석기시대 무지한 야만인에 비유하면서 시는 끝이 난다. 담장은 우선 사유재산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근대 자유주의체제의 법과 규범, 한 사회의 문화와 전통 등을 떠올리게 한다. 나아가 현대사의 질곡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를 가로지른 이데올로기의 대립 역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장벽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돌들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담장 틈이 벌어져 보수가 필요하듯,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문화 또한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수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담장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수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프로스트는 자아와 타자를 나누는 인간 내면의 경계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수정이 어려운 담장임을 나름 상당히 열린 사고를 하는 화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지. 차이와 다름을 문명과 야만, 우월과 열등으로 경계 짓는 심리는 아마도 인간 보편의 동물적 본능일 것이다. 동시에 본능을 넘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역시 바로 이 경계에 대한 자아인식일 것이다. 내면의 경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물의 이치 혹은 선을 추구할 때, 즉 경계를 넘어 지평(horizon)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을 것이다.

황정현(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경계와 지평

삼학송

명분은 ‘마법’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이 대학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송부했다. 대학축제 기간에 관습적으로 성행했던 ‘학과 주점’을 주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무허가 업체가 노상에서 술을 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국세청은 그동안 행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일 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창 축제철을 맞아 들쭉이 고깃덩이 대학가는 이 같은 소식에 연일 비상경보를 울리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인근 대학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으며, 축제 때 주점 운영을 포기하는 대학 역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학교는 추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리한 회의가 가져올 결과는 이미 불 보듯 뻔하다. 대학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학생회가 “법대로 하겠다”는 국세청의 ‘으름장’에도 주점 설치를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축제와 술이 아주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반대로 법을 어기면 서까지 축제에서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점 운영’의 금지가 ‘음주 불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생 개개인이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와서 마시기만 해도 법에 저촉될 일 없이 축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술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의 ‘통보’가 축제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상만사가 늘 그렇듯이 ‘학과 주점’은 맨땅에서 마법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학과 행사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고, 학과마다 특색 있는 주점 운영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뿐인가?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서빙을 하고, 메뉴의 원가와 가격은 얼마로 하고... 하루 이틀 만에 주점이 완성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보낸 공문은 이러한 노력을 마치 ‘마법’처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1~2개월만 더 빨리 처리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넌지시 일러두면 될 일을 ‘지엄한 법의 칼날’을 뽑아들고 학생들을 겁박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과정’은 어찌보면 ‘결과’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록 그 명분이 정당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과정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 국세청의 주장이 확연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데도 여러 대학에서 불만을 내는 연유도 이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은 ‘악습’이 된다. 이는 물론 분명히 철폐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명분은 ‘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명분만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만 마침내 ‘민주사회’에 걸맞은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형 편집국장

기자수첩

지난 4월 27일, 한 편의 낭보가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약 70년간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끝을 보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고대했던 상황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중의 반응을 보면 아직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처럼 느껴진다. 바로 SNS에 게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일련의 글 때문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SNS상에서 ‘김 위원장 귀엽다, 호감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정말 김 위원장은 ‘귀엽다, 호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일까? 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는 ‘숙청’이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다지고, 이를 굳히기 위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때부터 함께했던 리영호 총참모장부터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친형인 김정남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그들의 최측근들까지 김 위원장에게 죽임을 당했다. 심지어는 김 위원장이 연설할 때 즐겼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람도 있다. 단순히 구금, 체포, 추방, 해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김 위원장의 손에 생사를 달린 것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호감을 표하다니... 언론에 보도된 일면만 보고 김 위원장에게 호감을 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므로 어느 나라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위원장이 귀엽다’고 말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러한 글이 SNS에 게재되는 상황이 다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종전을 맞이해도 좋은 것인지, 이를 맞이하는데 있어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낙산에 올라

우리학교 교육 비전은 ‘서울의 CENTER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다. 실제로 산학협력,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대부분은 타 대학에도 존재하므로 ‘상상력’을 강조하는 한성대학교만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있어 공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뇌과학자인 정재승 박사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빌게이즈, 잡스와 같은 IT 인재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차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생각한 것을

뚝뚝 만들어 볼 수 있는 차고와 같은 환경이 혁신적인 상상력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정책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좀 더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상상력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간이 있다면, 우리학교의 인큐베이터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테이블과 의자, 화이트보드뿐인 상상관 지하의 세미나실? 도서관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 그도 아니라면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하고,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받아야만 대여가 가능한 강의실일까? 우리학교에 상상력 인큐베이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것저것 다 있는

차고를 만들어달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쉽게 대어할 수 있는 공간 중 프로젝트조차도 없는 곳이 대다수다. PPT를 이용한 발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상상력 인큐베이터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받은 자극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강현철(한국어문 4)

상상력 인큐베이터는 어디에?

낙산만평

김수현(인문 2)



2018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일반대학원(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 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계	경영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미디어디자인학과	
		예·체능계	학과 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뷰티예술학과
			안보전략학과
국방과학대학원	석사	사회계	국방관리학과
			국방시스템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및관리전공, 지적및토지관리전공, 한중부동산컨설팅전공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모집없음), 역사교육전공(모집없음), 영어교육전공(모집없음)

■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2018. 5. 14(월) 10:00 ~ 5. 25(금) 22:00
- 접수 방법**
대학원 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http://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 전형일**
2018. 6. 2(토) 10:00 ~ (학과별 변동 가능)
- 합격 발표**
2018. 6. 22(금) 오후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전화 문의**
02)760-4271(일반대학원 교학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 모집인원은 각 학과 ○명/○○명

제12회 사진공모전

응모기간

4월 2일 (월) ~ 5월 18일 (금)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공모전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응모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
신문사에 직접 제출
(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작품 제출 장소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한성대 신문사
(기업은행 2층)

사진공모전 신청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문사 방문 수령 가능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35호
(6월 4일 발행)

상금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문의

한성대신문사 02) 760-4186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

-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제출하실 때 A4용지에 이름, 학과, 학년, 학번, 휴대전화번호, 작품명을 필히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사

